



사람

탤런트 배우준

‘한국 아름다움...’ 화제

“유명인이 되기에 앞서 진정한 문화인이 되라고 신신당부하신(혜국) 큰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긴다.”

한류스타 배우준이 한국을 여행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며 느낀 소감을 써내려간 포토 에세이집 <한국 아름다움...> 화제



한국 전통문화 메신저로 나선 한류스타 배우준. 사진제공=시드페이퍼

한국의 문화, 예술, 전통에 대한 13가지 테마를 더 잘 알기 위해 여행을 떠난 배우준의 이야기를 담은 <한아여>는 출간되자마자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단순한 한국문화 소개를 넘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다는 제2의 ‘답사 신드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가 이 책에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묻어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불교포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하사 백홍암과 운부암, 오대산 월정사, 충주 석종사에서의 템플스테이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박종훈 소장의 순천 야생차밭에서의 선차(禪茶) 체험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운주사 등 불교유적 답사 △도예명장 천한봉 거사의 문경요 도자기 만들기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78호)과의 만남 등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여간 머물며 스님과 불자 예술인, 사찰, 문화유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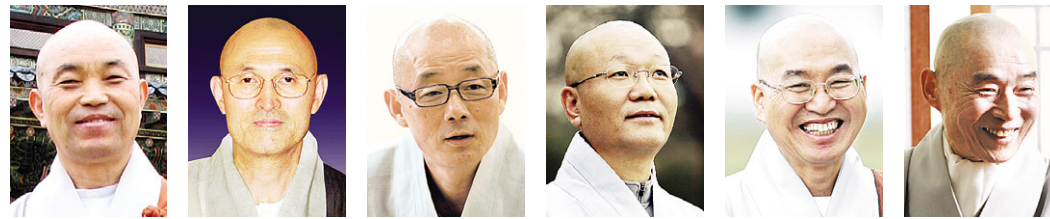
“나는 비록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한국의 사찰이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어떻게 수많은 문화재를 배출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늘 궁금했다. 사실 한국 문화에서 불교적 색채를 제외한다는 것은 핵심을 제외한 그 나머지만을 논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1년여 간 불교문화와 더불어 가정식, 김치, 한복과 살림살이, 옷차림, 한글과 세종대왕, 경복궁과 천상열차분야지도, 술과 풍류, 한옥, 풍경 등을 둘러보고 경험한 배우준의 심정은 어느새 구도자의 마음과 닮아있었다. 배우준은 머리맡에서 ‘잘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를 알아나가면서 나는 내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행을 통해 삶은 온 몸으로 배웠던 것 같다. 연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우 기자

‘포교노하우’ 공개해요

2009빛고을아카데미, ‘여래의 사자 만나다’ 주제로 27일부터



혜인 스님, 정락 스님, 명진 스님, 지홍 스님, 법륜 스님, 청화 스님.

광주사암련·불교TV·현대불교 공동주최

호남지역 불자들의 신행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해온 빛고을불교아카데미가 ‘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다섯 번째 문을 연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2009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10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문화센터 3층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포교 현장에서 남다른 성과를 보인 스님들의 생생한 포교경험담으로 엮여진다. 수행과 전법의 사명을 묵묵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스님들의 수행신념과 포교 철학,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들이 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강좌(11월 10일)는 서울

첫날(10월 27일) ‘신심과 원력의 길’을 주제로 강의할 혜인 스님(계주약천사 회주)은 약천사와 단양 광덕사 불사를 주도하며 느낀 무한한 감동과 가피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된다.

100만 배 기도 등 간단없는 정진과 불사를 수행으로 삼아 온 혜인 스님의 법문은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짜릿짜릿 하다. 두 번째 강좌(11월 3일)에서는 前 조계종포교원장 정락 스님이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을 주제로 강의한다. 정락 스님은 전국을 누비며 다양한 법회 현장에서 법문을 하면서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작은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원력의 삶이 곧 성불의 씨앗을 가꾸는 삶임을 강조한다.

세 번째 강좌(11월 10일)는 서울

불광사 주지 명진 스님이 맡는다. 주제는 ‘도심 속 천년 사찰을 깨우다’. 불광사 주지를 맡으면서 1000일 두문불출 기도를 선언하고 오직 절에서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신행과 불사를 독려했던 스님의 이야기는 현대 도심사찰의 포교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이 강의하는 네 번째 강좌(11월 17일)의 주제는 ‘아름다운 불광공동체’다. 은사 광덕 스님이 불을 지핀 불광공동체 운동의 성과를 통해 도심포교와 불교의 현대화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다섯 번째 강좌(11월 24일)에서 ‘수행, 일상에서 행복을 찾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빈그릇 운동’ 등으로 환경적인 삶의 길을 제시하며 국제구호 운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스님의 이야기는 참불자의 삶을 제시하게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간 15주년 특집 48면 발행

A

- “축하합니다” - 각계 인사 축하사인 ----- 3면
- 15주년에 만난 사람 -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 ----- 7면
- 선지식을 찾아서 - 윤성 스님 ----- 12-13면

B

- 도심속 문화와 휴식이 있는 사찰 ----- 1~2면
- 우리가족 이야기 - 탤런트 김용림 ----- 3면
- 달력에서 자주 보는 사찰풍경 ----- 5면
- 종교와 선거, 선거와 불교 ----- 6~7면
- 수행은 연습 생활이 실참 ----- 8~10면
-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 ----- 12~13면
- 독자와 기자가 말하는 현대불교 ----- 14면
- 긍정의 힘 ----- 17면
- 경전에서 배우는 생활 속 긍정 ----- 18면
- 템플스테이 진화를 말한다 ----- 20~21면

동방대에 도서기증 본사, 4000여 권



정상욱 동방대학원대 총장(오른쪽)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는 본사 임연태 편집부 국장.

마지막 강좌(12월 1일)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를 주제로 맡는다. 청화 스님은 불교계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서는 등 정열적인 수행의 길을 걸어왔다. 등단 40여 년 동안 쉬 없이 써 온 시들은 스님의 수행행이려서이기도 하다. 깊어가는 가을 밤 청화 스님의 시심이 불자들에게 줄 감동의 크기는 무등산을 넘어 수미산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각 강사로 나선 스님들의 포교과정을 담은 영상물과 사진자료 등이 같이 공개된다. (062)376-32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가 불교도서 4000여 권을 서울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욱) 도서관에 기증했다.

동방대학원대 정상욱 총장은 10월 8일 총장실에서 현대불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상욱 총장은 본사 임연태 편집부국장에게 전달한 감사패를 통해 “귀사에서 한국 근현대 불교자료전집의 4000권 상당의 불교와 관련된 귀중한 도서들을 우리 학교에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기증한 장서 가운데 불교 문화와 예술, 학술분야의 최신 서적들은 본 대학원의 연구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면서 지속적인 산학협력에 당부했다. 임연태 부국장은 “앞으로도 불교도서 기증과 더불어 문서포교 및 문화포교에 상호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영웅(해종)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희망리아 행선트레킹-5면에 안내



사찰음식 대향연

수원 봉선사(승가대학 장모연·사찰음식대학 연조직위원장) 등은 10월 8~10일 수원 봉선사에서 ‘2009 대한민국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했다. 한국사찰음식의 어제와 오늘의 가치를 다시 보고, 내일의 가능성을 기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대표 사찰음식 전시와 사찰 음식 사진 전시, 국제 세미나, 외국인 대학생 템플스테이,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은 관람객이 우화궁에 전시된 사찰음식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박재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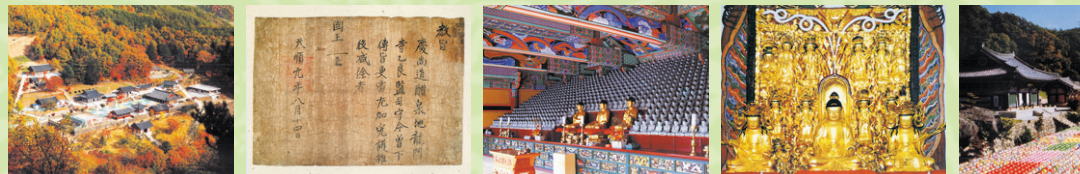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운장대(보물 제684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들봉사, 성보박물관



윤장대를 둘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둘러서서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로 방생할 수 있는 전을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양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둘러서서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오시는 길

-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 IC
-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인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